

화순군,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기계 장기임대 추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2억 투입...내달 19일까지 사업자 모집

화순군이 농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대상자를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올해 1개소에 총 2억 원을 들여 콩, 율무 등 주요 작목의 파종부터 수확에 필요한 고가의 농기계를 사들여 장기임대할 계획이다.

농기계 내구연한 또는 그 이상 동안 임대하며 임대료는 농기계 구매가의

35%를 임대 기간에 나눠 내게 된다.

농기계를 임차하면 콩, 율무 30ha 이상의 농작업을 대행해야 되므로 대행 작업이 가능한 농협, 작부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단체에 임대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촌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이바

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379-5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농촌지도자회 신 소득 작물 발굴 지원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물 발굴 특용작물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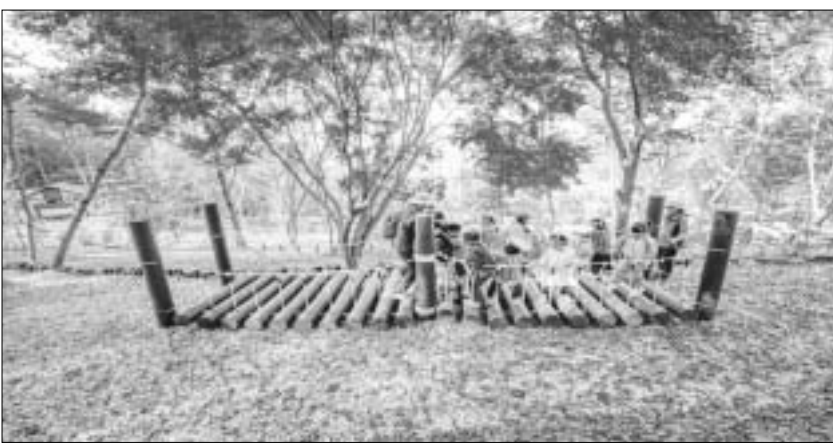
나주시는 최근 지역 농촌지도자회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특용작물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용작물 전문가인 경북농업기술원 권중배 박사를 초청, 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벼를 대체하는 양면, 오크라, 모로간 등 농가에 새로운 소득을 안겨줄 특용 작물 기술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최원섭 회장은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원이 농촌 지역의 핵심리더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벼 대체 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회장 최원섭)는 지난 1947년 4-H구락부 성인지도자로 출발해 농업기술전수, 농업인 간의 소통 증진 등 농촌 지도자 역할에 전념해오고 있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관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영광군에서 추진한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균형위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중 '우수' 등급을 받은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사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물무산 행복숲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시설이 없는 영광군에 '물무산 행복숲'이라는 종합 산림복지시설을 만들어 타 지역과의 산림복지 불균형을 해소했다. 또한 계단과 데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숲속둘레길 10km를 생활권에 만들어 일상 속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지극히 평범한 산에 숲속둘레길,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편백 명상원, 맨발힐링길 등 만들어 개성 있는 산림복지시설으로 탈바꿈 시킨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2020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내달 21일까지

함평군이 시설원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달 21일까지 '2020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내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 대상 사업은 시설원에 현대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스마트팜 ICT 용·복합 확산 등 총 3개 사업이다.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또는 농협APC·농업법인 등과 공동 출하

약정서를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양액재배시설 ▲유동팬 등 시설하우스 내 환경관리, 관수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난방이 필요한 재배온실에 ▲지열 냉·난방 ▲폐열 ▲부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다검보온커튼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소·화훼류 자동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ICT 용·복합 확산사업은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ICT 시설장비와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스마트팜 ICT 용·복합 확산사업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당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되므로 사전컨설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 20%로, 국고 융자는 고정 2% 또는 변동금리가 가능하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흥군 물과학관, 신나는 과학여행 운영



장흥군은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정남진 물 과학관 과학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남진물과학관은 물을 과학과 접목시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소 어렵 수 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험 교실에서는 반짝반짝 위티볼 만들기,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비눗방울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물의 소중함에 대한 시청각 교육도 마련돼 있다.

우산만들기, 부채만들기, 탐블러만

들기 등 상시 체험프로그램은 관람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층 수족관을 통해 수중 생명체를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물고기 먹이주기, 어항 만들기, 물고기잡기 등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물을 통해 과학현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과학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다.

물의 순환, 삼투압 현상, 구름의 생성 등 고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더불어 4D 애니메이션, 미니 동물원, 실감체험 등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과학여행 기간 2회(14시, 16시) 현장에서 어린이 10명을 접수받아 과학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관람시간을 18시에서 19시로 한시간 연장 운영한다.

장성군, 축령산 활성화 사업 본궤도 올라

장성군이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장성군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림을 핵심 향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특구' 지정을 신청해 2016년 12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축령산 편백 힐링특구' 지정을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산림청의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7월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7일 유두석 장성군수의 주재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서부지부 산림청 유태형 팀장의 '노령산맥권(축령산) 재창조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장성군의 '축령산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안' 발표가 진행된 후 분야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담양군, 폭염대비 건강취약계층 피해 예방 홍보활동 강화

가정방문 건강관리·전화안부 실시

담양군 보건소가 폭염을 대비하여 지역 건강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팀을 구성, 건강취약계층인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와 전화안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낮 무더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팀은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가정방문으로 2,455명, 경로당 5,886명에게 폭염대비 건강관

리 홍보 활동과 6,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전화안부를 살피는 등 보건·건강교육뿐만 아니라 더불어 상담, 말벗 등 정서적인 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고 있으며 폭염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한 홍보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정영 기자

